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정민*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Vancouver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17. 8. 6(일) ~ 8. 27(일)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랑가라 컬리지는 49th Ave에 위치해 있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여기 저기 앉을 곳이 많아서 수업 들어가기 전에 로비나 식당에서 친구들과 다 같이 얘기하다 들어가곤 했습니다. 학교 시설은 깨끗하고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듣기평가로 이루어진 시험을 본 후 5개 반으로 나뉘 수업합니다. 분반기준은 잘 모르겠고, 못하는 학생과 잘하는 학생을 모두 섞어놓는 듯 했습니다. 수업 내용은 모든 반이 다 비슷한데, 저희 반은 거의 쓰기보다 말하기 위주로 수업했습니다. 배운 내용은 밴쿠버의 문화와 신화 등이었고 각 나라의 문화 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반은 다른 반보다 숙제가 조금 많았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었고 다음 날 수업에서 할 말을 준비해오는 정도였습니다. 선생님은 활발하시고 재밌으신 분이셨는데, 저희가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많이 유도해주셨습니다. 수업은 정말 만족스러웠는데, 책 파일이 너무 무거워서 가지고 다니기 힘들었습니다. 스프링으로 된 교재가 들고 다니기에 부담이 덜 할 것 같습니다.</p>

Activity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p> <p>인솔자와 밴쿠버를 돌아보거나 아쿠아리움이나 박물관을 가는 등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활동하는 데에 관한 추가 비용은 전혀 들지 않았고 음료수를 사먹거나 식사를 해결할 때만 돈이 필요했습니다. 준비물은 딱히 없었고, 가방은 가볍게, 옷차림은 활동적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histler에 갈 때는 꼭 따뜻하게 입고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추위도 많이 타고 감기를 잘 걸리는 편인데 얇은 옷밖에 없어서, 홈스테이 엄마가 안감이 기모인 바람막이를 빌려주셨습니다. 반팔, 긴팔, 겹옷 이렇게 여러 겹으로 입으시면 더 좋습니다. Activity를 하기 전에 모든 사항에 대해 미리 공지해주고 항상 인솔자가 곁에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한국의 가을 날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팔이나 반바지는 거의 입지 않았고 긴팔을 주로 입었습니다. 햇빛도 워낙 강해 반팔보다는 얇은 긴팔을 추천해드립니다. 일교차가 조금 심한 편이라는 점도 유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아침, 저녁으로 매우 쌀쌀했습니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다만, 모르는 사람을 너무 믿거나 무엇을 물어본다고 해서 친절하게 답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홈맘에게 이 점을 주의 받았습니다.)</p>
숙소	<p>학교기숙사() 홈스테이 (o) 외부 숙소() 기타()</p> <p>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전 홈맘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을 정도로 만족스러웠습니다. 꼭 지켜야 할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침대 위에서 음식 먹지 않기 같은 기본적인 것) 홈맘이 제게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한국 음식도 자주 먹을 수 있었고 저녁때마다 자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영어 일기도 매일 고쳐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p>

식사	<p>학교식당() 홈스테이() 외부식당(o)기타()</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홈맘의 요리가 정말 맛있어서 처음엔 외식을 하지 않았는데, 홈맘이 많은 요리를 도전해보라고 조언해주셔서 일본음식, 그리스음식, 말레이시아 음식 등 여러 나라의 음식을 먹어 보았습니다.</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p> <p>Compass card라고 학교에서 나눠주어 교통비는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는 첫 날에 카드가 고장 나서 한 번 사비를 지불했고, 평일에 스카이라인 트레인을 타고 2존을 넘어가는 바람에 추가로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1,755,000	출국 전 사전 납부
여행자보험	31,966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식비(음료수 등)	235.14	
입장료	34	
교통비(ferry 포함)	38.9	
쇼핑	494.71	
합계	800	약 722,474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p>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p> <p>유심은 한국에서 사는 게 더 좋습니다. 밴쿠버에 가서 산 친구의 것과 비교해봤는데, 한국에서 산 유심이 더 싸고 데이터, 전화, 문자 모두 무제한이라 조건도 좋았습니다.</p> <p>앞서 언급했듯이 가을 같은 날씨에 일교차가 조금 심하니, 긴 옷을 충분히 가져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햇빛도 한국보다 훨씬 강하니까 모자와 선글라스는 꼭 준비해서 가시길 바랍니다.</p> <p>저는 밴쿠버에 가기 전에 홈맘에게 미리 메일로 연락을 해서 지켜야 할 점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어떻게 지내는 지 등 안부도 자주 물었습니다. 선물도 준비했는데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이렇게 연락한 덕분에 만났을 때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친근하게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p>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이번 하계단기어학연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평소에 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하면서 그동안 닫혀있던 제 마음도 많이 열렸습니다. 또한, 홈맘과 저녁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홈맘이 인생에서 중요한 교훈이나 태도 등 심오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셔서 영어실력 향상과 더불어 많은 것들을 배우고 올 수 있었습니다.

밴쿠버에 도착한 후 첫째 날부터 길을 잃어서 헤매고 있을 때 버스 운전기사 분과 승객 분이 도와주셨던 것, 동전도 없는데 교통카드가 작동하지 않아서 버스 운전기사 분께 솔직하게 말하니 그냥 타라고 하신 것, 모르는 사람인데 말을 붙이면 대화를 거절하지 않고 친절하게 설명해주었던 일, 무슨 문제만 생기면 홈스테이 오피스로 달려가 직원 분들께 계속 문의했던 것 등등 3주 동안 여러 문제들을 겪었지만 그만큼 많은 도움을 받았고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올 때, 홈맘이 영어공부를 지속해야 한다며 향후 계획을 물어보셔서 어떻게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지 생각해보았습니다. 홈맘이 저는 스피킹 실력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해주셔서 전화영어를 등록했습니다. 그 외에도 홈맘과 종종 메일을 주고받고 밴쿠버에서 친해진 일본인 친구들과도 연락을 계속하면서 영어를 계속해서 쓸 수 있게 노력할 것입니다.

밴쿠버에 있는 3주 동안 정말 행복했습니다. 홈맘이 다이어리를 선물해주셔서 매일 일기를 쓰고 나면 언제든지 봐주셨고, 닭갈비나 잡채 등 한국 요리도 자주 해주셔서 먹는 걸로 고생하는 일 또한 없었습니다. 재미있게 영어를 배웠고 영어에 대한 욕심도 많이 커졌습니다. 다만, 제 자신에게 아쉬웠던 점은 매일 공부하면서 놀자니 체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몸이 힘든 와중에 감기까지 걸려서 둘째 주에는 오전 수업시간을 힘겨워했습니다. 수업시간에 충실하게 임하지 못한 점도 많이 아쉽고 못 가본 곳도 있어서 더 아쉽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한국인&일본인 친구들



Stevestone



Granville Island



stanley park



발표



whistler